

중국 물류 리포트

CHINA LOGISTICS REPORT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(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)

中國 上海市 長寧區 遵義路 100號 虹橋上海城 A-1803

Tel.+86-21-6090-0395~6, Fax.+86-21-6090-0397

제13-10호

2013년 9월 23일

Contents

- ▶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
: 2012년 중국 석유 수출입
- ▶ 중국 물류 포커스
: 동북진흥전략 10년, 대외물류 현황과 전망 [2]
- ▶ 중국 물류 동향

■ 2011-2012년 중국 석유 순수입량 (백만 톤, %)

구분	2012년	2011년	증가율
원유	268.66	250.03	7.5
휘발유	-2.92	-4.06	-28.2
등유	-1.24	-0.42	-195.2
경유	-0.92	0.41	-324.4
윤활유	2.09	2.21	-5.4
중유	15.17	14.41	5.3
나프타	2.88	1.95	47.2
LPG	2.06	2.24	-8.0
아스팔트	4.82	3.96	21.7
코크스	4.70	2.04	130.4
기타	0.31	-0.05	-720.0
석유	295.61	272.73	8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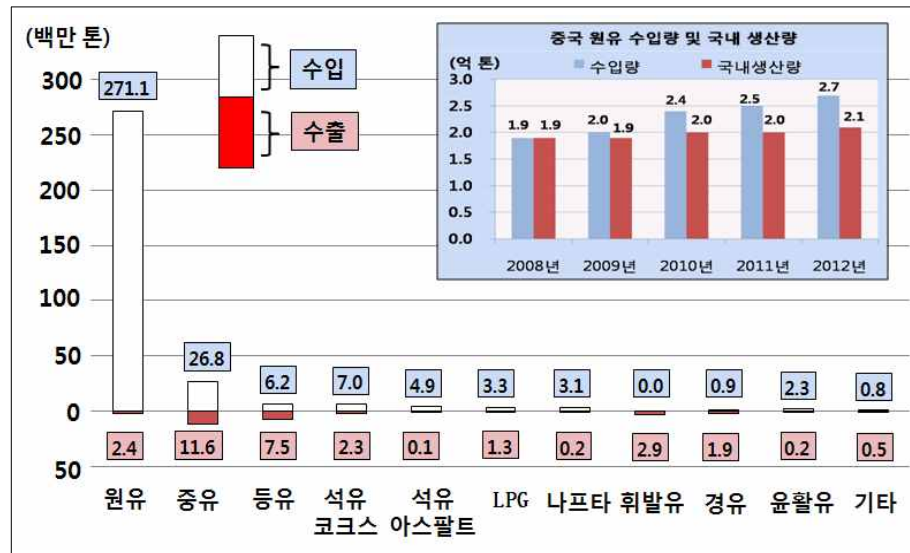
주 : 순수입=수입-수출, -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음.

자료 : 중국석유그룹경제기술연구원.

중국물류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, 자료원을 「KMI 중국물류리포트」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Copyright©KMI All Rights Reserved.

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 : 2012년 중국 석유 수출입



주 : 나열 순서는 교역량(수입+수출) 순.

자료 : 중국석유그룹경제기술연구원(www.etri.cnpc.com.cn) ; KMI 작성.

2012년 중국 석유 순수입량 2.96억 톤, 대외 의존도 58.8%

2012년 중국의 석유 수입은 3.27억 톤, 수출은 3,090만 톤으로 석유 순수입량(수입-수출)은 전년대비 8.4% 증가한 2.96억 톤을 기록했으며, 중국의 석유 대외 의존도는 전년대비 1.5%p 증가한 58.8%에 달했다. 특히 원유의 순수입량은 전년대비 7.5% 증가한 2.69억 톤으로 대외의존도는 56.4%를 기록했다. 2012년 중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5,392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, 앙골라 4,015만 톤, 러시아 2,433만 톤 등의 순이었으며, 핵위기 고조로 인한 이란산 원유 수입은 전년대비 -21% 하락한 2,192만 톤을 기록했다.

경제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, 2012년 중국의 석유 표관소비량(Apparent consumption, 국내원유생산량+원유 및 석유제품 순수입량)은 전년 동기대비 5.6% 증가한 5.03억 톤으로 사상 최초로 5억 톤을 돌파했으며, 특히 도로건설과 자동차 소비가 가속화됨에 따라 아스팔트와 휘발유 소비가 각각 18.4%, 12.3%의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했다. 중국석유그룹의 분석에 따르면, 이러한 추세가 올해에도 지속됨에 따라 2013년 중국 석유소비량을 5.3억 톤으로 추산하고 있으며, 석유 수입량은 8.5% 증가, 그중 원유 수입량은 8.6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

Contents

- ▶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
: 2012년 중국 석유 수출입
- ▶ 중국 물류 포커스
: 동북진흥전략 10년, 대외물류 현황과 전망 [2]
- ▶ 중국 물류 동향

지수 동향

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

	09-13	09-18
종합지수	1,112.19	1,104.96
일본 향로	799.75	812.18
구주 향로	1,460.74	1,445.62
미서부 향로	1,064.11	1,052.32
미동부 향로	1,212.01	1,212.19
한국 향로	630.22	632.13

자료 : 상하이 항운교역소.

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

	09-13	09-18
종합지수	1,141.17	1,140.27
석탄	1,264.06	1,261.29
곡물	974.70	990.50
금속광석	910.68	910.68
정유	1,227.03	1,227.03
원유	1,597.14	1,597.14

자료 : 상하이 항운교역소.

중국 물류포커스 : 동북진흥전략 10년, 대외물류 현황과 전망 [2] - 창지투 개발과 북한 나진항 운송 통로 현황 및 시사점

1 창지투 선도구, 지린성 경제개발의 핵심지역

중국 지린성은 랴오닝, 헤이룽장성의 중간에 위치하며, 북한 및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다. 또한 풍부한 산림자원과 115종에 이르는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¹⁾, 성 전체 산업생산(工业增加值)의 25.4%(2012년 기준)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을 비롯해 석유화학산업, 식품산업, 제련산업이 발달해 일찍부터 중국의 대표적인 중공업기지로 자리 잡았다.

동북진흥전략 10년간(2003~2012년) 지린성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8.9%에 달해 동기간 동북 3성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, 2009년 중국 국무원은 국가급 전략으로 창지투(长吉图, 창춘시~지린시~투먼시)를 핵심지역으로 한 「중국 투먼장(图们江)지역 협력개발계획강요-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」를 발표함에 따라, 창지투를 중심으로 한 지린성의 경제발전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.

[그림 1] 창지투 지역 범위 및 개발 영향도



자료 : KMI, “중국 동북 창지투 개발전망과 진출 전략”, KMI 제4차 상해 CEO 물류포럼(2011.05).

2 중·러·북 접경도시 훈춘의 현황

창지투선도구의 끝 점에 위치한 훈춘은 러시아, 북한과 접경하고 있으며, 북한 나진·청진항 및 러시아 포시에트·자루비노항을 100km내에 두고 있는 창지투지역의 대외 관문이다. 또한 2012년 4월 국무원이 「중국 투먼장지역(훈춘) 국제협력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」을 발표하면서 훈춘의 동북아 경제·물류상의 전략적 지위는 더욱 부각되었다²⁾.

1) 특히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셰일오일(Shale oil)과 규회석(Wollastonite) 등은 중국 최대의 매장량을 보유, 지린성인민정부 홈페이지.
2) ‘투먼장(훈춘)국제협력시범구’는 90km² 면적에 국제산업협력구, 국경무역협력구, 중·북 훈춘경제



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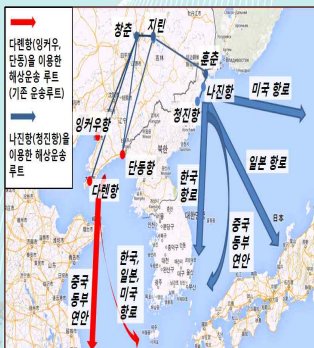
- ▶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
: 2012년 중국 석유 수출입
- ▶ 중국 물류 포커스
: 동북진흥전략 10년, 대외물류 현황과 전망 ②
- ▶ 중국 물류 동향

■ 2011년 훈춘 통상구 화물 통과량 (만 톤)

구 분	수출	수입	합계
대북한			
첸허(圈河)도로 통상구	5.43	14.20	19.63
샤톈자(沙坨子)도로 통상구	0.31	0.97	1.28
대러시아			
훈춘도로 통상구	4.53	2.62	7.15
훈춘철도 통상구	-	-	-

자료: 「2012年中国口岸年鉴」.

■ 동북 내륙지역 해상운송루트 비교



자료: KMI 작성.

현재 훈춘에는 4개의 대 북한·러시아 통상구가 있으며, 좁게는 연변조선족자치주~북한 나진·선봉 지역~러시아 하산스키(Khasansky) 지역을, 넓게는 중국 동북지역~중국 동남연해지역 및 동북아시아 지역을 연계한다. 현재 훈춘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내륙지역~러시아·북한을 잇는 교통인프라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, 2010년 창춘~훈춘을 잇는 고속도로가 전면 개통되었고, 2012년에는 북한 원정리 통상구~나진항까지의 도로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어 훈춘에서 나진항까지의 차량 운행시간이 기존 약 90분에서 현재 약 50분으로 대폭 단축되었다. 2013년 8월에는 운행 중단되었던 훈춘~러시아 카미쇼바야(Kamyshovaya) 철도구간이 재개통되면서, 더욱 다양한 대외 운송루트를 확보하게 되었다.

또한 훈춘의 물류기지 건설도 가속화되고 있으며, 특히 현재 훈춘시와 포스코·현대그룹이 협력하여 훈춘포스코현대물류단지를 건설중이며, 2014년 하반기 1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[표 1]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 사업 소개

구 분	내 용
위치 및 면적	훈춘 국제물류개발구 예정지구 내 1.5km ² (약 45만 평)
사업 개황	- 중국 훈춘시 소재 국제물류개발구 부지 장기임차(50년: 2014년~2064년) - 물류창고, 컨테이너 야적장, 배송시설, 부대편의 시설 건설 - 물류기업에게 시설물 임대 및 위탁 운영
주요 취급품목	소비재, 사료, 자동차 및 부품, 곡물, 목재, 수산물 등
교역범위	지린성·헤이룽장성을 중심으로, 중국 동부연안지역(장삼각·주삼각지역) 및 한국·일본·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지역 대상
주요 고객	글로벌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
개발계획	1기(2014년 말 완공 계획, 면적 비율 20%) → 2기(2016년 말 완공 계획, 면적 비율 34%) → 3기(2019년 말 완공계획, 면적 비율 46%) 순차 개발

자료: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개발유한공사 자료.

3 중국, 훈춘~나진항을 통한 동해 진출 가속화

훈춘과 약 50km 떨어진 북한 나진항은 부동항이자, 천혜의 심수항으로 인근 러시아 자루비노·포시에트항의 얕은 수심, 노후된 항만시설, 중·러간의 복잡한 통관 및 높은 육로 운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항만이다. 최근 나진항을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 움직임은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³⁾, 중국은 이미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진항의 1호, 4~6호 부두(미개발)의 장기이용권을 확보한 상태이며, 최근 4호 부두의 건설공사도 시작된 상황이다. 2011년부터 나진항 1호 부두를 통해 나진항~닝보·상하이 항로가 개통되었으며, 2012년 5월까지 약 10.4만 톤의 석탄이 동 항로를 통해 운송되었다(현재 임시운영중지).

협력구, 중·러 훈춘경제협력구 등 4개 구역으로 기능 구분됨. 그리고 재정세수, 에너지, 신소재 및 장비제조 등 산업 발전, 토지이용, 인프라 건설, 금융혁신, 구역내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(보세구) 설립, 인재 육성, 통관수속 편리, 특별자금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을 부여함, 국무원, 「중국 투먼장지역(훈춘) 국제협력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」.

3) 중국은 2011년 북한과 「중·북한 나선경제구(2011-2020년)계획에 관한 기본 협의」를 통해, 이미 북한과 나선경제특별구 470km² 지역의 공동개발관리를 체결한 상태이며, 훈춘~나진항까지의 고속도로 건설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짐, 필자주.



Contents

- ▶ 통계로 보는 중국 물류
: 2012년 중국 석유 수출입
- ▶ 중국 물류 포커스
: 동북진흥전략 10년, 대외물류 현황과
전망 2
- ▶ 중국 물류 동향

또한 현재 나진항 1호 부두를 임대 중인 훈춘창리(珲春创力)해운물류회사가 2014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나진항~닝보·상하이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⁴⁾, 향후 나진항은 중국 동북지역의 중요한 무역항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러시아 역시 최근 블라디보스토크항의 결빙 현상 심화 및 석탄 수출 증가에 따라 나진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러시아는 2010년 나진항 3부두 이용권을 확보하고, 현재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, 나진항~러시아 하산 철도구간 개보수 공사도 이미 마무리 된 상태로 올해 내 정식 개통을 준비 중에 있다⁵⁾.

4 동북아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훈춘~나진항~러시아 지역 개발 참여 시급

최근 한·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~유라시아 연계철도(TKR~TSR)가 거론된 가운데, 유라시아 철도의 길목 요충지로서 나진항이 재조명되고 있다. 과거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나진항 개발이 거론되었지만, 여러 요인으로 무산된 바 있다. 또한 2007년부터 운영된 나진항~부산항간의 정기 화물노선도 북한 경제상황 악화 및 남북관계 경색으로 2010년 운영 중단된 상태이다.

나진항은 중국 및 러시아와 이어지는 물류거점으로 우리나라 환동해권 경제 활성화 및 한반도 경제교류에 기여하고, 포스트 통일 시대 한반도 해상안보와 물류통로 확보를 위한 요충지임이 틀림없다. 이에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진항을 동남아~동북아~태평양 항로 구축을 위한 ‘국제항’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. 이를 위해선 먼저 나진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고,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하는 나진항 개발에 한국, 미국, 일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. 나진항 개발을 현재 활기를 띄고 있는 ‘광역두만강개발계획(GTI: Great Tumen Initiative)’등을 이용한 국제적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. 또한 중국 훈춘, 쑤이펀허⁶⁾, 투먼 및 극동러시아 항만 등 나진항 연계지역의 물류단지 건설 및 기업 진출 지원으로 중·러·북~한·일·북미·유럽 항로간의 안정된 물류기지 확보 및 화물수요 창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.

김세원 연구원 · 김범중 중국연구센터 센터장
kmishanghai@gmail.com

- 4) 나진항~상하이/닝보 컨테이너 항로는 2014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운영선사는 중국 Hainan POSHipping이 거론되며, ① 1단계로 상하이/닝보~나진 정기 컨테이너 노선(500~800TEU급 1척 투입) 운영, ② 2단계로 싱가포르~원첸(温泉)~황푸(黄浦)~상하이/닝보~나진 컨테이너 노선을 확대(1,000TEU급 2척 투입)할 계획, 훈춘창리해운유한공사, 훈춘국제현대물류포럼 발표(2013.08).
- 5) 1970년대까지 구소련은 나진항을 교역 및 군사적 용도로 이용했으며, 이미 나진항에는 구소련식 철도 광궤가 인입되어 있어 러시아로의 철도운송이 용이함, KMI, “중국 동북 창지투 개발전망과 진출 전략”, KMI 제 4차 상해 CEO 물류포럼(2011.05).
- 6) 쑤이펀허 물류통로에 관하여는 「KMI 중국물류리포트 13-9호」 참조.

[illegible]